

1 장 첫 번째 의미 관계

- 수십만 년에 불과한 역사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도 생존, 협력, 소통을 위한 분투의 역사 한가운데 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관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주위에도 대단히 많은 관계가 존재한다.
- 유기체들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 사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존재하며, 그로부터 우리는 삶의 충만함을 얻고 더 큰 생태계에서 존재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식물은 혼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식물은 같은 종이든 다른 종이든, 자신을 강화시키는 다른 식물 근처에서 번성한다. 이웃할 식물이 주위에 없다면 그 식물은 차라리 땅속에서 자라는 것이 나을 것이다.
- 물건은 관계 형성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물건의 가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잠재력에 있다. 하지만 때로 물건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도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불필요한 개념이다. 부유한 북유럽의 자동차는 90% 이상의 시간을 움직이지 않은 채 흘러보내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휴일과 주말을 보내는 오두막은 보통 비어 있다.
- 많은 대부분의 물건들은 실존적 불안에 대해 침묵하는 증인처럼 마냥 곁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들 중에는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있다. 오래된 가보, 어릴 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가족 여행, 오지 탐험, 히말라야 산행등이다. 이것들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을 떠올려주는 귀한 존재다.

● 문화마다 다른 음식과 환대의 의미

- 역사학자 비에른 큐빌러는 속칭 ‘전투와 술병’이라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외교사에서 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그의 주요 가설은 음주가 우정과 상호 이해에 꼭 필요한 윤활유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적당한 취기가 성공적인 외교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다.
- 그러나 술에 취해 지각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권리와 의무가 가득 찬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했지만 나는 혼자만 있는 삶 또한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만족감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최신 인공지능의 발전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있다.
- 내가 행동하는 것은 이기심 때문도 의무감 때문도 공정한 이유 때문도 아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다.
- 모든 사회에는 관계의 본보기가 되는 연대, 즉 일종의 사회적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대 속에서 발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감사와 희생, 용서, 취약성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신자유주의 찬양과는 동떨어져 있다. 사회적 연대 안에서 이런 강렬한 유대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보지 못한 개인의 삶이란 불완전 할 수밖에 없다.

● 연결은 인간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약점과 취약성을 존중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느냐이다.
- 시장 이론은 팬데믹 동안 기능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약자는 굴복해야 한다는 것만이 단호한 시장의 법칙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는 주체는 국가와 사회 규범, 시민단체였다. 국가 정치가 삶의 가장 중요한 틀이 되었다.